

영춘향교 건축양식

신 안 준*

-
- I. 머리말 II. 배치형식
 - III. 진입공간 IV. 강학공간
 - V. 제향공간 VI. 지원공간
 - VII. 맺음말
-

키워드 : 영춘향교, 배치형식,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

I. 머리말

향교는 공자(孔子, 기원전 552~479년)의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기원된 유교 또는 유학의 교육과 전파를 위해 각 지방에 관학(官學)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유교는 삼국시대 전래되었으며 향교는 고려시대 인종 5년(1127년) 최초 설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들어서 유교를 국가통치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과 향교를 각 지방 행정구역 마다 교육기관으로 설치하는 지방교육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전국 각지에 많은 수의 향교가 설립되었고 또한 향교가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 충청대학교 교수

향교는 설립목적과 주요기능이 공자 등 유교 성현(聖賢)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에 대한 교육이었으므로 기본적 건축형식도 두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사를 위한 제향공간과 교육을 위한 강학공간이 주공간으로 형성되었으며 제향기능과 강학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공간과 진출입을 위한 진입공간이 부공간으로 형성되었다.

향교의 공간구성과 각 공간별로 포함되는 주요 건물 및 시설의 종류는 <표 1>과 같으며, 이들 중 제향공간의 대성전과 강학공간의 명륜당이 향교의 전체 배치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 중심적 요소로 역할을 하였다.

향교는 건축을 통해 제향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기능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적 이념인 엄격한 질서와 위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배치에서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축(軸)에 의해 공간적 질서와 위계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영춘향교의 건축양식을 알아보려고 하며 구체적 방법으로 먼저 향교 건축양식의 기본적 틀이자 규범 역할을 하는 배치형식을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배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즉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II. 배치형식

향교의 배치형식은 주기능이자 주공간인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배치형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묘후학 형식, 전학후묘 형식, 병렬 형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은 주로 남쪽을 정면으로 하고 남북 축을 주축으로 하여 배치되었다.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은 앞쪽에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이 위치하고 그 뒤쪽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제향공간이 위치하는 형식이다. 주요 건물로는 외삼문과 명륜당 그리고 내삼문과

<표 1> 향교의 구성요소

구분	공 간	주요 건물 및 시설	비 고
주 공간 (主空間)	제향공간 (祭享空間)	대성전(大成殿) 동무(東廡), 서무(西廡) 마당(中庭), 외곽담장 등	대성전의 중심의 정형적, 대칭적 배치
	강학공간 (講學空間)	내삼문(內三門)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외곽담장, 마당(中庭) 등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사이에 배치 명륜당 중심의 정형적, 대칭적 배치
부공간 (副空間)	지원공간 (支援空間)	제기고(祭器庫), 전사청(典祀廳) 존경각(尊經閣), 교직사(校直舍) 등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주위에 자유롭게 배치
	진입공간 (進入空間)	홍살문(紅箭門), 하마비(下馬碑) 누각(樓閣), 외삼문(外三門) 진입로(進入路) 등	앞쪽에 배치

대성전이 차례로 직선 축 위에 위치하였다.

향교가 경사지형에서 건축될 경우 외삼문으로부터 명륜당, 내삼문을 거쳐 점차 지형이 높아지면서 대성전이 가장 높게 뒤쪽에 위치함으로써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배치형식이었으므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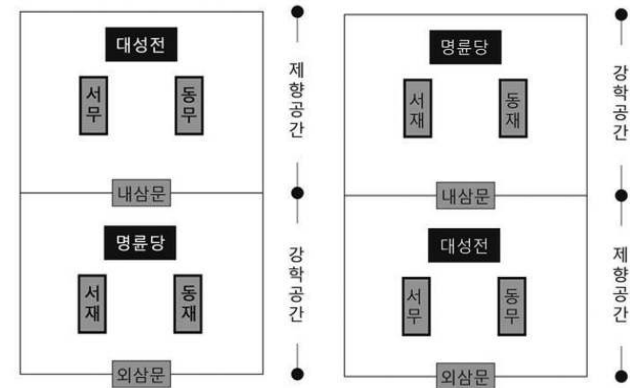
주로 남북방향의 경사지형에 건축된 향교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배치형식으로 현존하는 향교 중 약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 청주, 괴산, 장수, 양천, 진주, 남원 등의 향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전묘후학(前廟後學) 형식은 앞쪽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제향공간이 위치하고 그 뒤쪽에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이 위치하는 형식이다. 주요 건물로는 외삼문과 대성전 그리고 내삼문과 명륜당이 차례로 직선 축 위에 위치한다.

전학후묘 형식이 주로 경사지형에서 이용되면서 국내 향교의 대부분

을 차지하였던 반면에, 전묘후학 형식은 주로 평지지형에서 이용되면서 현존하는 향교 중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균관, 나주, 전주, 영광, 정읍 등의 향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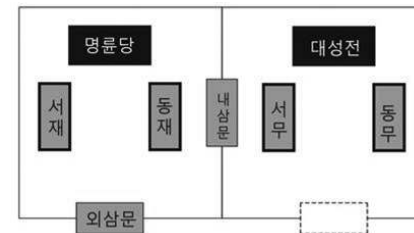
병렬(竝列) 형식은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제향공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이 나란히 위치하는 형식이며, 향교를 등진 위치에서 정면을 바라볼 때 두 공간의 좌, 우 위치에 따라 좌묘우학(左廟右學) 형식, 좌학우묘(左學右廟) 형식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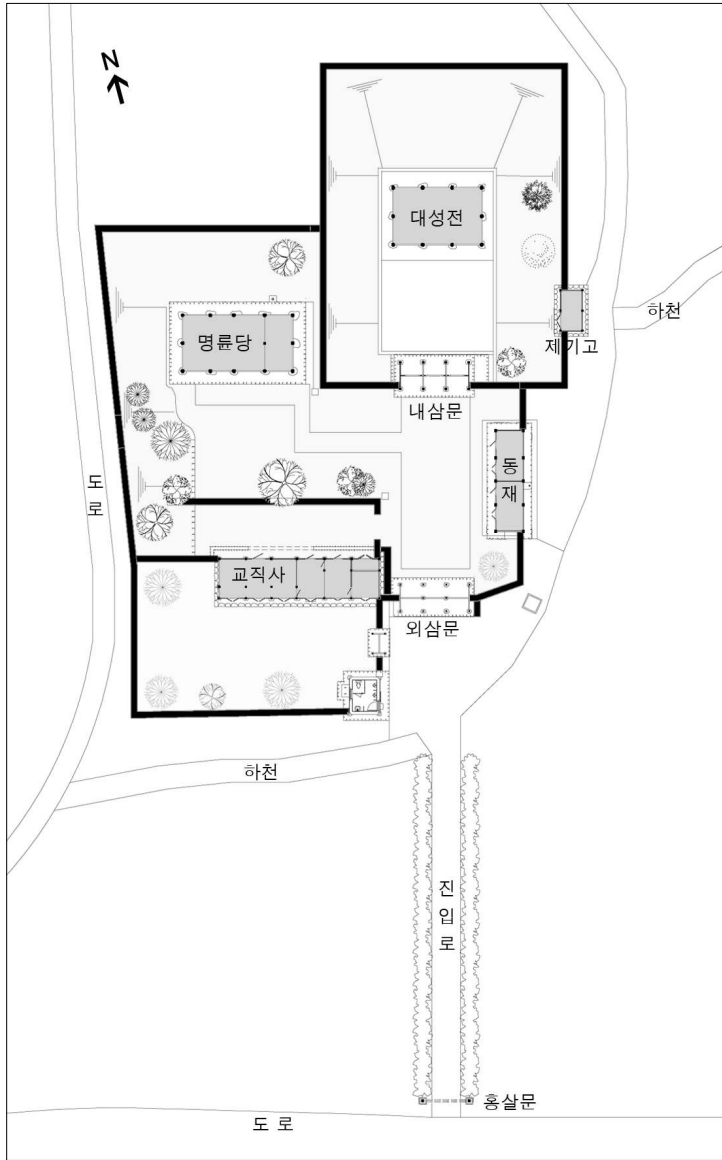
[도면 1] 전학후묘 형식

[도면 2] 전묘후학 형식

● — 강학공간 — ● — 제향공간 — ●



[도면 3] 병렬 형식 - 좌묘우학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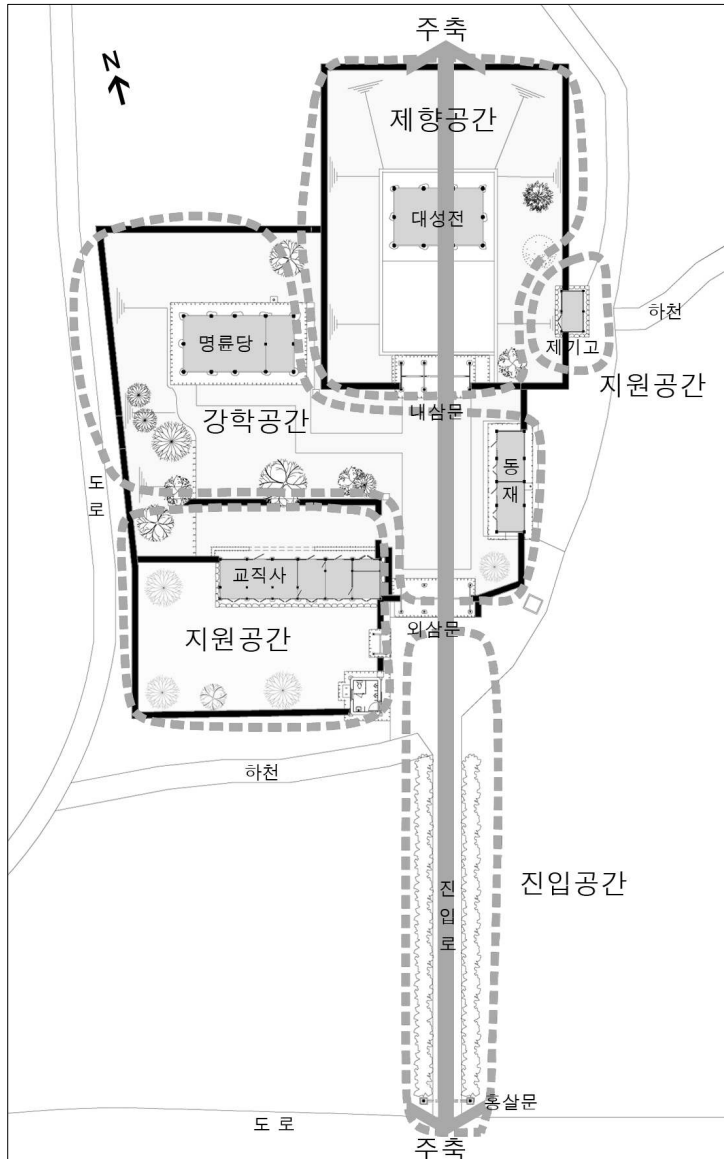
[도면 4] 배치도

전학후묘, 전묘후학 형식이 남북방향인 긴 종방향 형태 대지에서 주로 적용되었던 반면에, 병렬 형식은 남북방향 보다 동서방향인 긴 횡방향 형태 대지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배치형식이다. 현존하는 향교 중 약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춘, 진천, 강화, 합천, 거창, 밀양 등의 향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영춘향교는 조선 초기 1398년(정종 1년)에 창건된 후 네차례의 이건(移建)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1791년(정조 156년)에 현재의 위치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네 차례 이건뿐만 아니라 수차례 중수(重修)를 거

<표 2> 영춘향교의 구성요소

구분	공간	건물 및 시설	규모	비고
주공간 (主空間)	제향공간 (祭享空間)	대성전(大成殿) 마당(中庭) 외곽담장	정면 3칸 측면 2칸	동무(東廡), 서무(西廡)가 없이 대성전을 중심으로 정형적으로 배치
	강학공간 (講學空間)	내삼문(內三門)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마당(中庭) 외곽담장	정면 3칸 측면 1칸 정면 4칸 측면 2칸 정면 4칸 측면 1칸	서재가 없이 명륜당과 동재에 의해 비정형적으로 배치
부공간 (副空間)	진입공간 (進入空間)	외삼문(外三門) 홍살문(紅箭門) 진입로(進上路)	정면 3칸 측면 1칸	주출입구 역할
	지원공간 (支援空間)	제기고(祭器庫) 교직사(校直舍)	정면 2칸 측면 1칸 정면 6칸 측면 2칸	제향공간에 부속 배치 강학공간 앞쪽에 배치



[도면 5] 공간구성

쳤으므로 그 동안 배치형식뿐만 아니라 그를 구성하는 건축물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나 도면이 부족하므로 본 연구는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배치형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춘향교는 평지에 가까울 정도의 매우 완만한 경사지형에 배치되었고 기본적 배치형식은 병렬 형식이며 세부적으로는 제향공간이 좌측에 배치되고 강학공간이 우측에 배치된 좌묘우학 형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렬 형식은 두 공간이 나란하게 배치되는 반면에, 영춘향교는 명륜당이 대성전보다 약간 앞쪽으로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강학공간이 제향공간의 앞쪽까지 감싸고 있다.

또한 강학공간의 주출입구인 외삼문과 중정형식의 마당 일부가 제향공간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홍살문, 진입로, 외삼문, 마당, 내삼문, 마당, 대성전을 연결하는 강한 직선 축을 형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직선 축의 형성과 이에 의한 공간적 전개는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므로 주로 전학후묘 배치형식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기법이었다.

이와 같이 영춘향교는 지형조건상 병렬 형식을 기본적 배치형식으로 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전학후묘 형식을 적용함으로써 향교의 본질적, 건축적 특성이었던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이 배치뿐만 아니라 건축양식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Ⅲ. 진입공간(進入空間)

진입공간은 외부로부터 향교로 진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향교의 가장 앞쪽에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향교 가장 앞쪽에 홍살문(紅箭門)이 세워지고 그 근처에 하마비(下馬碑)가 설치되었으며, 외부로부터 홍살문



[사진 1] 진입공간

을 통과한 후 진입로를 지나 향교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외삼문에 이르게 된다.

진입공간은 외부로부터 제향공간 또는 강학공간 등 향교 주공간에 이르는 과정적(過程的) 공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교 외부와 내부의 제향공간 또는 강학공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적(媒介的) 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부분 향교가 홍살문에서 외삼문까지 직선의 진입로를 형성함으로써 진입축(進入軸)과 정면성(正面性)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유교적 질서와 위엄을 강조하였다.

영춘향교의 진입공간은 평지지형에서 직선 진입로에 의해 남북 축을 형성하였으며, 정면에 형성된 강학공간의 진입공간뿐만 아니라 측면에 교직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원공간의 진입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영춘향교의 경우 남북방향 직선 축에 의해 진입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일반적 향교 진입공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직선 축은 홍살문으로부터 외삼문, 내삼문을 거쳐 대성전까지 연장되면서 향교 전체 배치 및 공간구성의 주축을 형성하였다.

IV. 강학공간(講學空間)

향교의 강학공간은 유생들의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일명 교육공간(教育空間)이라고도 지칭된다. 유생들의 교육을 행하고 교관(敎官)들의 거처 역할을 하는 명륜당(明倫堂)과 유생들이 숙식과 독서를 행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요 건물이었다.

향교 규모에 따라 서재가 생략되고 동재만 배치되기도 하였으며 기타 건물로서는 교육, 풍류, 사색을 위한 누각(樓閣), 도서 출판과 보관을 위한 건물로 일명 장판각(藏板閣) 또는 경판고(經板庫)라고도 지칭되는 존경각(尊經閣) 등이 주위에 추가되어 배치되기도 하였다.

강학공간의 배치형식은 일반적으로 방형 평면으로 둘러싼 외곽 담장 내부에서 명륜당을 중심으로 전면 양쪽에 동재와 서재가 서로 마주보며 대칭형으로 배치되고 대성전과 마주보는 위치에 강학공간의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내삼문 또는 외삼문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지원건물로서 주위에 누각, 존경각 등의 건물이 배치되었다.

명륜당은 강학공간의 중심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평면이 일반적이었으며 중앙에 넓은 교육공간으로서 3칸의 대청을 설치하고 양쪽에 각각 1칸의 온돌방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공포는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익공양식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 형식이었다.

동재, 서재는 유생들의 생활공간으로 동재에는 양반의 자제, 서재에는 평민 자제의 교생들을 수용하였으며 일반적 건축형식은 온돌방, 마루, 부엌으로 구성된 평면, 정면 3칸과 측면 2칸 정도의 규모, 공포가 없는 도리식 가구, 홑처마 맞배지붕이었다. 동재와 서재는 향교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 일정한 형식이 없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형식과 기법으로 건축되었으며 동무, 서무와는 달리 두 건물이 대부분 동일한 형식으로는 건축되지 않았다.



[사진 2] 강학공간

외삼문 대신에 2층 규모의 누각을 설치하여 1층은 출입을 위한 문으로 사용하고 2층은 교육, 풍류, 사색을 위한 누각 마루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명륜당을 설치하지 않고 명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누각을 향교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건축하거나 또는 아예 외부에 독립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춘향교의 기본적 배치형식은 병렬 형식 중 좌묘우학 형식으로 강학공간이 우측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학공간이 제향공간의 우측과 전면을 감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무가 없이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 외삼문 등에 의해 구성하였다.

정형적으로 구성된 제향공간과 달리 강학공간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스러운 배치와 공간을 구성하였고 또한 주건물인 명륜당과 주출입구인 외삼문의 배치 축이 일치되지 않고 각각 독자적 축을 형성하였다 는 점이 특징적 이라 할 수 있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우측에 1칸의 온돌방을 형성하고 좌측에 3칸의 우물마루 대청을 형성하였으며, 무출목(無出目)의 초익공(初翼工) 공포, 무고주 오량가구, 겹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온돌방으로만 단순하게 구성된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홀처마



[사진 3] 제향공간

맞배지붕 형식이며,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맞배지붕의 솟을삼문 형식이다.

V. 제향공간(祭享空間)

제향공간은 향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공자와 유교 성현을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공간이며, 일명 제사공간(祭祀空間) 또는 문묘공간(文廟空間)이라고도 지칭된다.

정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으로 둘러싼 외곽 담장 내부에서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전면 양쪽에 중국과 국내 유현들의 위패를 모신 동무(東廡), 서무(西廡)가 서로 마주보며 대칭형으로 배치되고 대성전과 마주보는 위치에 제향공간의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내삼문 또는 외삼문이 배치되었다.

향교 규모에 따라 동무, 서무가 생략되고 대성전만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제향 기능을 보조하는 지원건물로서 제례용 물품을 보관하는



[사진 4] 내삼문 및 대성전

제기고(祭器庫), 제례용품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사청(典祀廳) 등의 건물이 주위에 추가되어 배치되기도 하였다.

향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향교의 제향공간은 주출입구와 대성전을 연결하는 직선 축(軸)에 의해 전체적으로 대칭성(對稱性)과 중심성(中心性)이 매우 강한 정형적(定型的) 배치와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의해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대성전은 제향공간의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는 건물로 향교내 다른 건물에 비해 규모, 양식, 의장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위계성과 상징성을 지녔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정면 3~5칸, 측면 2~3칸 규모의 평면, 익공양식(翼樑樣式), 겹처마 맞배지붕 형식이었다.

동무와 서무는 대성전보다 한 단 낮은 지형에 건축되거나 같은 지형 일 경우는 기단을 낮게 하여 건축되었으며 또한 작은 규모로 간결화된 구조, 양식, 장식에 의해 건축되었다. 두 건물이 서로 동일한 형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일반적 건축형식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평면, 공포(樞包)가 없는 도리식(道里式), 홑처마 맞배지붕 형식이었다.

영춘향교 배치형식은 병렬 형식 중 좌묘우학 형식으로 제향공간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무, 서무가 없이 대성전을 중심으로 내삼문, 제기고에 의해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정형적으로 구성된 강학공간과 달리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정형적 배치와 공간을 구성하였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통칸(通間) 구조로 내부는 장마루 바닥이며 일출목(一出目)의 이익공(二翼樑) 공포, 무고주(無高柱) 오량가구(五梁架構), 겹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대성전 정면에 위치한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맞배지붕의 솟을삼문 형식이며 전면 우측에 위치한 제기고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식이다.

VI. 지원공간(支援空間)

향교에서 지원공간은 주공간인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보조하기 위하여 주위에 형성되는 부속적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제향공간, 강학공간과는 달리 일정한 배치형식이나 규범이 없이 자유롭게 배치되거나 건축되었다.

일반적으로 제향공간 주위에는 제례용 물품을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 제례용품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사청(典祀廳) 등의 건물이 추가되어 배치되었으며, 강학공간 주위에는 교육, 풍류, 사색을 위한 누각(樓閣), 도서 출판과 보관을 위한 건물로 일명 장관각(藏板閣) 또는 경판고(經板庫)라고도 지칭되는 존경각(尊經閣) 등의 건물이 추가되어 배치되었다. 관리인의 거처를 위한 건물로 일명 고직사(庫直舍) 또는 수직사(守直舍)라고도 지칭되는 교직사(校直舍)는 제향공간, 강학공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영춘향교의 지원공간은 제향공간에 부속되어 건축된 제기고 그리고 강학공간의 앞쪽에 위치하고 담장에 의해 별도로 구획된 교직사 등에



[사진 5] 교직사



[사진 6] 제기고

의해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제기고는 대성전 전면 우측에 위치하고 단순한 기법과 양식에 의해 소규모 창고 형식으로 건축되었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통칸 평면구조, 홑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교직사는 명륜당 전면에 위치하고 사주문(四柱門)에 의해 별도의 외부 출입문을 형성하였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온돌방, 부엌, 마루 등에 의해 구성된 일자형 평면 민가형식의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의 규모, 1교주 오랑가구, 홑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현재는 평면이 일부 변형된 상태이다.

VII. 맺음말

영춘향교는 1399년 최초 창건된 이후 네차례 이진(移建)되고 또한 수차례 중수(重修)되었으므로 그 동안 건축형식과 기법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와 같은 건축적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나 도면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춘향교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건축양식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춘향교 건축양식의 특성은 우선 배치형식에서 두드러진다. 기본적

배치형식은 병렬 형식 중 좌묘우학 형식이지만 두 공간이 나란하게 배치되는 일반적 병렬 형식과는 달리 명륜당이 대성전보다 약간 앞쪽으로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강학공간이 제향공간의 우측과 전면을 감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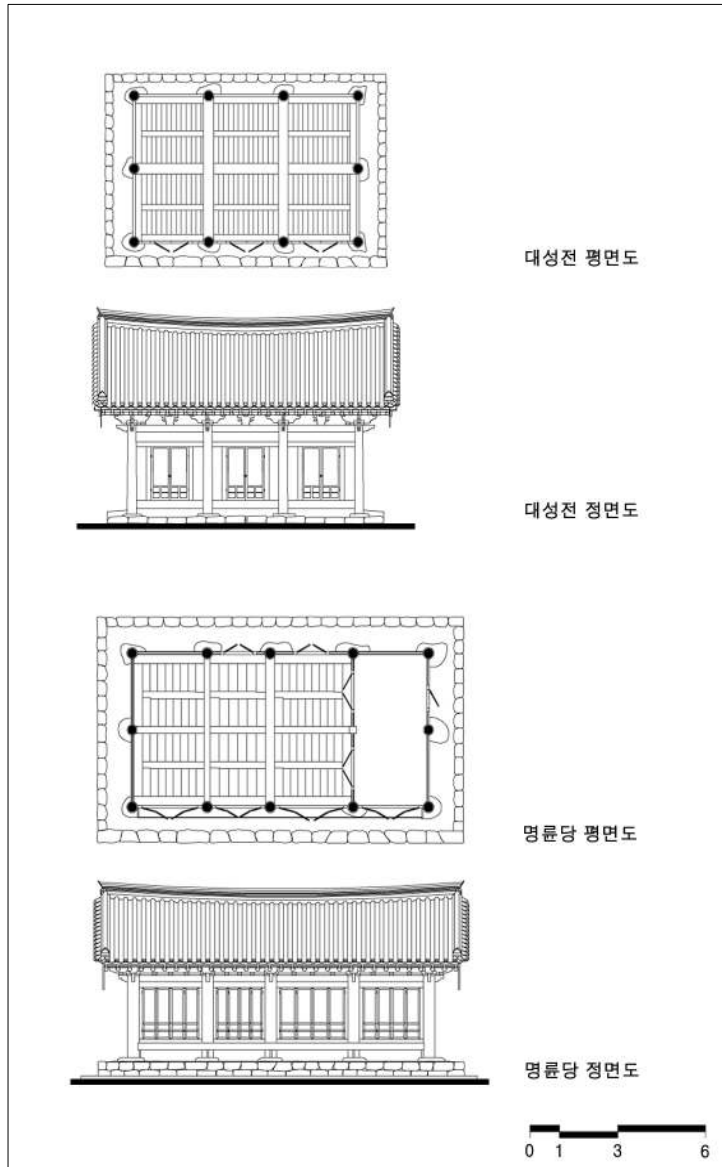
동무, 서무가 없이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향공간은 매우 정형적 배치와 간결한 공간을 형성한 반면에 서재가 없이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학공간은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으로 자유스러운 배치와 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살문, 진입로, 외삼문, 마당, 내삼문, 마당, 대성전을 연결하는 강한 직선 축을 형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직선 축의 형성과 이에 의한 공간적 전개는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므로 전학후묘 배치형식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기법으로 영춘향교와 같은 병렬 배치형식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특이한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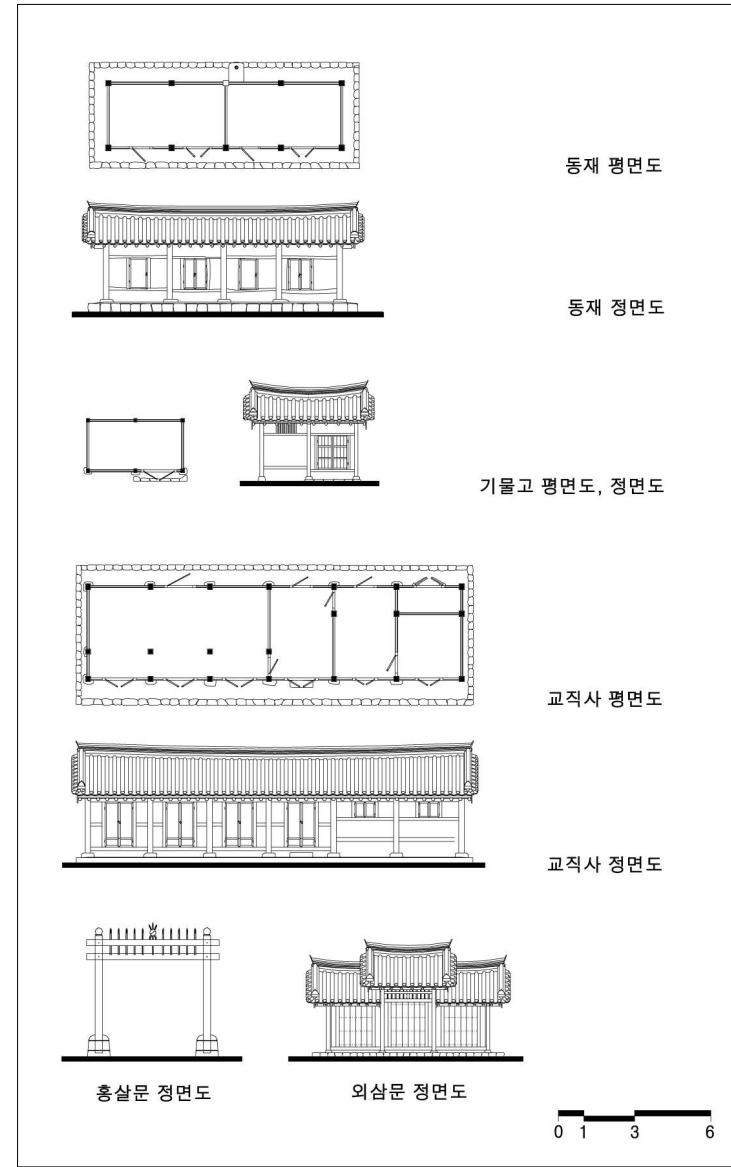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영춘향교는 지형조건상 병렬 형식을 기본적 배치형식으로 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전학후묘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향교의 본질적, 건축적 특성이었던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이 배치뿐만 아니라 건축양식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지, 단양군, 2010년
2. 김영진, 충북의 향교와 문묘, 청주대학교 박물관, 2005년
3. 김양식, 충북지역 향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2002년
4. 박왕희, 한국의 향교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년
5. 조원섭, 향교건축의 구성양식에 내재된 위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년



[도면 6] 주요건물-1



[도면 7] 주요건물-2